

증례Ⅳ - 2

Mandibulectomy와 free flap으로 재건된 환자에 있어서의 구강악안면보철 증례

배은경, 문홍석, 정문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구강암은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여섯번째로 가장 흔한 암으로, 선진국의 예를들면 전체 암의 3%에서 20-30%인 국가도 있다. 그중 혀, 구강저와 oro pharynx부위는 전체 구강암의 85%를 차지한다.

이러한 구강암 환자는 대부분 외과와 방사선적인 치료를 받는데, 의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존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 치료 범위와 한계도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치료후 재활 수술이나 치료또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본 증례는 61세 남환으로서, 구강저의 병소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한 후 구강암으로 판정받고 symphysis, 좌우 body of mandible, anterior 2/3의 tongue에 걸친 영역을 resection한후 composite fibula flap으로 재건 수술을 받은 환자의 구강악안면 보철치료이다.

방사선치료 전 상악의 잔존 치아는 예후가 좋지 않아 발치하였고, 환자분의 사정상 보철치료는 방사선 치료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Free flap과 bone graft로 기능적, 해부학적으로 변화된 구강 조직에 맞는 수복 술식을 응용하여 환자의 사회적 적응을 개선시키고 제한적이지만 저작, 발음, 심미성 회복을 위한 보철치료를 진행하였다.